

甲骨文 '中'字의 異體字形 및 造字本義에 관한 文字學的 考察

김혁*

< 목 차 >

1. 서론
2. 甲骨文 '中'字의 異體字形에 대한 분류와 분석
3. 甲骨文 '中'字의 造字本義 및 字形演變
4. 결론

1. 서론

殷墟 甲骨文이 1899년 王懿榮에 의해 발견된 이래, 1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하여 文字學, 言語學, 歷史學, 考古學 등의 분야에서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文字 考釋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취가 있었지만, 학계에서 공인된 釋讀은 전체 甲骨文字의 절반에도 못 미쳐 여전히 해결해야 할 疑難字가 태반인 상황이다. 그러면 이러한 미해독 글자, 즉 古文字의 疑難字를 어떻게 해독해나가야 할 것인가? 필자는 반드시 字形을 古文字 考釋의 근본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復旦大學 劉釗 교수는 《古文字構形學》에서 字形 爲主(以形爲主)의 文字 考釋 원칙을 논한 바 있다.

www.kci.go.kr

* 復旦大學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博士課程










古文字를 考釋하는 근본원칙은 ‘形’을 爲主로 하는 것이며 字形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文字는 形, 音, 義 3요소로 구성되는데, 하나의 글자를 식별하는 과정은 ‘形’으로부터 ‘音’으로, 그리고 다시 ‘音’으로부터 ‘義’로 도달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形’이 첫째로서 선결해야할 조건이며, 오직 ‘形’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야 비로소 音義의 문제를 논할 수 있다. ‘形’에 대한 해석이 옳다면 문제의 과반을 해결했다고 봐도 무방하며, 만일 ‘形’에 대한 해석에 잘못이 있다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音과 義에 대한 해석은 더욱더 정확할 수가 없다. 古文字의 考釋은 미해독된 古文字와 이미 알고 있는 후대 문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古文字를 考釋하는 과정은 字形比較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古文字 가운데 그 수많은 글자들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字形比較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글자들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냈기 때문이다.¹⁾

이러한 字形爲主(以形爲主)의 考釋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면 나아가서 古文字 字形의 構形, 즉 글자의 구성성분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박사학위논문을 甲骨文의 形體에 대한 분류와 분석이라는 주제로 집필해왔으며, 甲骨文 가운데 異體字形이 많고 卜辭에 자주 출현하는 常用字 위주로 엄선하여 類組²⁾와 用法에 따른 字形差異를 연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필자의 연구 작업의 일환으로서 甲骨文 ‘中’字的 構形에 대하여 考古類型學을 참고하여 분류 및 분석을 진행하고, 用法과 類組에 따른 字形差異를 考察하며, 동시에 ‘中’字的 造字本義에 대해서도 文字符號觀에 입각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劉釗, 《古文字構形學》(修訂本),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11, 228-229쪽: 考釋古文字的一條根本原則, 就是以形爲主, 從字形出發. 文字都具有形、音、義三部分, 但辨識一個字的過程, 只能是由形至音, 由音到義的過程. 形是第一位, 是先決條件, 只有先解決了形, 才能談到音義. 形的解釋對了, 問題就算解決了一大半, 而形的解釋錯了, 音、義的解釋便不可能對. 古文字考釋是指將未識的古文字與已識的後世文字相比較, 找出兩者間的聯繫. 考釋古文字的過程, 也就是字形比較的過程. 古文字中的許多字我們現在能夠認識, 就是通過字形比較, 找到了與已識字的聯繫.

2) 類組라는 개념은 甲骨文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類는 字體類를, 組는 貞人組를 의미한다. 甲骨文을 분류할 때, 貞人組보다 字體 스타일이 더욱 중요한 분류의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組類라 하지 않고 類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貞人組가 ‘賓’인 그룹은 字體類에 따라서 賓組一類, 賓組典賓類, 賓組三類로 나눌 수 있다. 甲骨文의 分類에 대한 연구는 단행본으로 출판된 黃天樹의 박사논문을 참고하라. 黃天樹, 《殷墟王卜辭的分類與斷代(簡體版)》, 北京: 科學出版社, 2007.

2. 甲骨文 '中'字의 異體字形에 대한 분류와 분석

古文字 字形에 대한 분류는 考古類型學의 理論을 이용할 수 있다. 考古類型學이라는 것은 고고실물자료에 대한 과학적 귀납과 분류 및 분석을 통하여 비교하고 연구하는 考古學의 한 방법론이다. 유물의 형태 대조, 그리고 이를 통하여 유물의 변화규율, 논리적 발전순서 및 상호관계를 탐구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형태를 지녔고, 또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거친 모든 고고유물들에 대해서는 類型學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³⁾ 古文字 字形 역시 筆劃과 偏旁을 분해한 후, 같은 글자의 異體字形에 대하여 구성성분의 공통특징에 따라 '類型'이라는 분류단위로 귀납해낼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甲骨文 '中'字의 異體字形을 주요 구성성분에 의거하여 분류하면 크게 A類() , B類() , C類() , D類() , E類() 등 5가지 類로 나눌 수 있다. 이 5가지 類 가운데 B類와 C類는 B1型() , B2型() , C1型() , C2型() 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中'字의 形體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A類



合13357

(賓組典賓類)⁴⁾



合35347

(黃類)

3) 考古類型學에 관한 理論은 다음 저서들을 참고하라. 俞偉超, <關於“考古類型學”的問題>, 《考古學是什麼》,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樂豐實, 方輝, 靳桂雲, 《考古學理論·方法·技術》, 北京: 文物出版社, 2002. (英)科林·倫福儒, 保羅·巴恩, 《考古學理論·方法與實踐》, 北京: 文物出版社, 2004. Molly Raymond Migon著, 金庚澤譯, 《考古學的理論과 方法論》, 서울: 주류성출판사, 2006.

4) 본 논문에서 甲骨文 類組를 구분하는 기준은 王卜辭의 경우 黃天樹의 분류법을, 賓組卜辭의 세분화는 奇川龍의 분류법을, 非王卜辭는 蔣玉斌의 분류법을 따른다. 黃天樹, 《殷墟王

B類

B1型

 合13375

(賓組典賓類)

 合28569

(何組二類)

 合補13169正

(黃類)

 合32846

(歷組二類)

 合27884

(歷無名間類)

 屯2320

(無名類)

B2型

 合32982

(歷組二類)

C類

C1型

 合7569反

(賓組三類)

 合22587

(出組二類)

 花75

(花東子卜辭)

C2型

 合32214

(師歷間類)

 合32226

(師歷間類)

D類

 合20908

(師組小字類)

 合21302


(師組小字類)


 合14868


(師賓間類)

卜辭的分類與斷代(簡體版)》,北京:科學出版社,2007.奇川龍,《賓組甲骨文分類研究》,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蔣玉斌,《殷墟子卜辭的整理與研究》,吉林: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2006.


E類

 合20587
(師組肥筆類)

 合3261
(師組小字類)

 合6174
(賓組典賓類)


 英2367
(何組一類)

 合32498
(歷組二類)

 合28124
(無名類)

 合21565
(子組)

 合21879
(圓體類)








 合22215
(婦女類)


甲骨卜辭에서 '中'字는 立中的 '中', '가운데', '仲', '인명', '지명' 등 다섯 가지 의미를 지닌다. '立中'은 깃발을 세워 군중을 모은다는 뜻으로, 여기서 '中'은 단순한 깃발이 아닌 군중을 집합시키기 위한 中心의 의미가 강조된 깃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⁵⁾ '가운데'의 의미는 左中右의 {中}을 나타내고, '仲'은 '仲宗', '仲丁', '仲子'의 {仲}을 나타낸다.⁶⁾ 그리고 어떤 卜辭의 類組이든 대체로 '가운데', '인명', '지명'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A-D類의 字形을 사용하고, '仲'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E類의 字形을 사용하는데, 이처럼 다른 異體字形을 사용하여 다른 용법을 나타내는 현상을 異體分工이라 부른다. 이러한 異體分工의 원칙은 刻手가 글자를 새길 때, 의도적으로 행하는 일종의 서사습관인데, 반드시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게 구별하여 서사한다.⁷⁾




5) 黃天樹, <非王卜辭中“圓體類”卜辭的研究>, 《黃天樹古文字論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6, 102쪽.



6) 본 논문은 문자와 어휘(詞)를 구별하는 부호로서 裘錫圭의 《文字學概要》의 방식을 따라 중괄호({})를 사용하여 어휘(詞)를 표기한다. 裘錫圭, 《文字學概要》(修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14.





7) 裘錫圭는 일찍이 《文字學概要》에서 文字分化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때, 異體字分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裘先生의 논의는 주로 後代文字의 分化現象을 다룬 것으로서 甲骨文의 異體分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甲骨文 내에서의 異體分工은 王子楊이 그의 박사논문에서 전문적으로 다룬바 있다. 王子楊의 논문은 2013년 中西書局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裘錫圭, 《文字學概要》(修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14, 214-217쪽. 王子楊, 《甲骨文文字形類組差異現象研究》, 上海: 中西書局, 2013, 149-170쪽.



- (3) 辛卯卜, 永貞: 王惠  立, 若.
 (辛卯일에卜의 卦열을 내고 永이 점친다: 왕이 깃발을 세워 軍중을 집합시키면 순조로울 것이다.)
 合7363正(賓組典賓類)
- (4)  日其雨.
 (정오에 비가 올 것이다.)
 合29790(何組二類)
- (5)  成有  (翦).
 (中戌部隊가 전승할 것이다.)
 屯2320(無名類)
- (6) 戊辰卜: 在  大  告鹿, 王其射, 亡災, 擒.
 (戊辰일에卜의 卦열을 냈다:  지역에 있는 犬官 中이 사슴의 출현을 알려왔는데, 왕이 가서 활을 쏘면, 재난 없이 포획할 수 있다.)
 合27902(無名類)


B2型의 字形은 B1型의 形體 가운데 직사각형 부호에 깃발을 표시하는 필획을 중복 추가하여  (合32982)으로 서사한다. B2型은 歷組二類卜辭에 출현하며 {中}을 나타낸다. 그 文例는 다음과 같다.







- (7)  牧于義, 攸侯  (由?) 鄙.
 (中牧은 義지역에 있고, 攸侯는 변경지역을  한다.)
 合32982(歷組二類)

C1型의 字形은 B1型의 形體에서 깃발을 나타내는 필획을 하나씩 생략하여  (合22587),  (花75) 등으로 서사한다. C1型은 賓組三類, 出組二類, 花東子卜辭에 출현한다. 賓組三類卜辭는 C1型으로 {中}, '지명'을 나타내고, 出組二類卜辭는 '인명(貞人名)'을 나타내며, 花東子卜辭는 C1型으로 {中}, {仲}을 나타낸다. 그 文例는 다음과 같다.


- (8) 丙申卜, 貞: 肇馬左右  人三百. 六月.
(丙申일에卜의 균열을 내고 점친다: 騎馬部隊 좌중우 총 300명을 준다. 6월에.)
합5825(賓組三類)
- (9)  示.
(中이 공납하였다.)
합7569反(賓組三類)
- (10) 乙亥卜,  貞: 曰: 其侑于丁, 惠三牢.
(乙亥일에卜의 균열을 내고 中이 점친다: 侑祭를 武丁에게 드리는데, 제 사용 소 3마리를 드리도록 명하라.)
합23059(出組二類)
- (11) 甲子卜, 貞: 妃  周妾不死.
(甲子일에卜의 균열을 내고 점친다: 妃中周의 첩이 죽을 것이다.)
花321(花東子卜辭)


C2型の 字形은 B2型和 마찬가지로 C1型の 形體 가운데 직사각형 부호에 깃발을 표시하는 필획을 중복 추가하여  (합32214),  (합32226) 등으로 서사한다. C2型은 師歷間類卜辭에 출현하며 立中의 '中'을 나타낸다. 그 文例는 다음과 같다.



- (12) 甲寅卜: 立 .
(甲寅일에卜의 균열을 냈다: 깃발을 세워 군중을 집합시키라.)
합32214(師歷間類)



D類의 字形은 B, C類의 形體에서 하단부 필획을 생략한 것으로  (합20908),  (합14868) 등과 같이 서사한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의 主要偏旁이 '中'(, , )이라는 점이다. 이는 甲骨文 '中'字 造字意圖의 포커스가 '깃발'에 있다는 것의 좋은 傍證이 된다.¹¹⁾ D類는 師組小字類, 師賓間類


卜辭에 출현한다. 師組小字類卜辭는 D類로 {中}을 나타내고, 師賓間類卜辭에서는 {仲}을 나타낸다. 그 文例는 다음과 같다.

- (13) 乙卯卜: 丙辰雨. 余: 食人雨. 羞  日雨.
 (乙卯일에 卜의 균열을 냈다: 丙辰일에 비가 올 것이다. 내가 점쳐 말하길:
 오전에 비가 올 것이다. 정오에 가까운 시간에 비가 왔다.)
 合20908(師組小字類)¹²⁾







- (14) 丁卯卜: 翌庚辰侑于大庚至于  丁.
 (丁卯일에 卜의 균열을 냈다: 다음 庚辰일에 侑祭를 大庚부터 中丁에 이르는 조상신들에게 드려라.)
 合14868(師賓間類)

E類의 字形은 主要偏旁에서 깃발을 나타내는 필획을 생략하고 깃대만 남겨  (합20587),  (합28124) 등으로 서사한다. E類는 거의 모든 類組 卜辭에 출현하며 대부분 {仲}을 나타낸다. 師組, 師賓間類, 無名類 卜辭에서는 종종 {中}을 나타내기도 하며, 賓組典賓類 卜辭에서는 '지명'을 나타내기도 한다. 구체적인 文例는 다음과 같다.

- (15) 乙亥卜, 貞: 于  子用牛.
 (乙亥일에 卜의 균열을 내고 貞가 점친다: 仲子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소 한 마리를 써라.)
 合20025(師組小字類)
- (16) [丙午]卜, 貞: 翌丁未酒  丁, 易(賜)日.
 (丙午일에 卜의 균열을 내고 점친다: 다음 丁未일에 中丁에게 酒祭를 드리면 혜가 나올 것이다.)
 合6174(賓組典賓類)

11) B1型의 字形 가운데  (합5807)의 形體도 보인다.

12) 合20908의 綴合은 宋雅萍의 綴合 '合20537(乙349)+乙8'과 彭裕商의 綴合 合20771(乙305)+合20908(乙402) 이 두 組를 다시 蔣玉斌이 綴合하여 완성되었다. 蔣玉斌, 《甲骨文新綴35組(更新第十三組)》,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先秦史研究室, <http://www.xianqin.org/blog/archives/2576.html> 참고.



- (17) 戊子卜: 其又歲于  己王賓.
 (戊子일에卜의 균열을 냈다: 又祭와 歲祭를 仲己에게 드리는 데, 왕이 儻導하는 형식으로 드러라.)
 合27394(歷無名間類)
- (18) 癸亥卜:  子又入, 往來唯若.
 (癸亥일에卜의 균열을 냈다: 仲子가 다시 들어오는데, 오고 감에 순조로울 것이다.)
 合21566(子組)
- (19) 惠  泉先 .
 (中麓지역을 먼저  하라.)
 合28124(無名類)
- (20)  示.
 (中이 공납하였다.)
 合9968白(賓組典賓類)



이상 甲骨文 ‘中’字를 形體의 특징에 따라 A-E類로 분류하고 文字學的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甲骨卜辭의 다른 類組에 따라 사용하는 字形의 類型이 다른데, 이는 다른 刻手들의 각기 서로 다른 서사습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用法에 따라 다른 字形을 사용하는 異體分工現象도 살펴볼 수 있었다. 위에서 考察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師組卜辭는 D, E類의 字形을 사용하는데, D類로 {中}을 나타내고, E類로 {中}, {仲}을 나타낸다. 師賓間類卜辭 역시 D, E類의 字形을 사용하는데, D類로 {仲}을 나타내고, E類로 {中}, {仲}을 나타낸다. 賓組典賓類卜辭는 A類, B1型, E類의 字形을 사용하는데, A類, B1型으로 立中의 ‘中’ 또는 {中}을 나타내고, E類로 {仲}, ‘지명’을 나타낸다. 賓組三類卜辭는 C1型, E類의 字形을 사용하는데, C1型으로 {中}, ‘지명’을 나타내고, E類로 {仲}을 나타낸다. 出組二類卜辭는 C1型の 字形을 사용하는데, C1型으로 ‘인명(貞人名)’을 나타낸다. 何組, 歷無名間類卜辭는 B1型, E類의 字形을 사용하는데, B1型으로 {中}을 나타내고, E類로 {仲}을 나타낸다. 黃類卜辭는 A類, B1型的 字形을 사용하며, 모두




{中}을 나타낸다. 師歷間類卜辭는 C1型的 字形을 사용하여 立中의 '中'을 나타낸다. 歷組卜辭는 B1型, B2型, E類의 字形을 사용하는데, 歷組一類卜辭는 B1型으로 {中}을 나타내고, 歷組二類卜辭는 B1型, B2型으로 立中의 '中' 또는 {中}을 나타내며, E類로 {仲}을 나타낸다. 無名類卜辭는 B1型, E類의 字形을 사용하는데, B1型으로 {中}, '인명'을 나타내고, E類로 {中}, {仲}을 나타낸다. 非王卜辭 가운데 花東子卜辭는 C1型的 字形을 사용하여 {中}을 나타내고, 子組, 圓體類, 婦女類卜辭는 E類로 {仲}을 나타낸다.


3. 甲骨文 '中' 字의 造字本義 및 字形演變

甲骨文 '中' 字의 造字本義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唐蘭의 깃발설, 溫少峰, 袁庭棟의 해시계설, 黃德寬의 풍향계설, 田樹生의 建鼓설 등이다.¹³⁾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甲骨文 '中' 字의 기본형이 이라는 것과 의 字形, 그리고 立中의 '中'이 균중을 집합시키는 깃발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점으로 볼 때, '中' 字의 象形 대상이 깃발 또는 이와 유사한 사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¹⁴⁾ 따라서 해시계, 풍향계, 建鼓의 주장을 하는 학자들 모두 이러한 점을 기본전제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唐蘭 이외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해시계, 풍향계, 建鼓 등은 모두  ,  ,

13) 唐蘭, 《殷墟文字記》, 北京: 中華書局, 1981, 48-54쪽. 溫少峰, 袁庭棟, 《殷墟卜辭研究—科學技術篇》, 成都: 四川省社會科學院出版社, 1983, 14-16쪽. 黃德寬, <卜辭所見“中”字本義試說>, 《文物研究》第三期, 1988, 112-117쪽. 田樹生, <釋中>, 《殷都學刊》第二期, 1991, 1-5쪽.






14) 金文에도 '中' 字의 字形으로  (中婦鼎),  ((作妣己解)),  (采卣) 등이 보인다.




 등의 字形에 보이는 '○' 또는 '□'의 形體에 대한 해석이다. 그러나 甲骨文, 金文 등 古文字에서 볼 수 있는 字形 또는 한 字形의 구성성분을 반드시 어떠한 사물의 象形 또는 圖象으로 이해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 또는 '□'과 같이 비교적 추상적인 符號의 경우, 어떤 구체적인 사물의 반영이라고 해석한다면 그 어떤 수많은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 또는 '□'보다 구체적인 形體가 새롭게 출현하지 않는 이상, 이들은 결국 난무하는 추측에 그치고 말 것이다. 사라 알란(艾蘭)은 2012년 復旦大學에서 개최한 中國古文字研究會第十九屆年會에서 《試論甲骨文的“中”字》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는 黃德寬의 풍향계설을 기반으로 한 걸음 나아가 '□'을 '지구'를 추상화한 圖象이라는 주장을 펼쳤다.¹⁵⁾ 필자는 古文字 字形에 대하여 행해지는 모든 文字學的 근거보다는 상상력에 근거한 신화적 해석을 경계하며, 甲骨文 '中'字의 '○', '□'에 대하여 文字符號觀에 입각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唐蘭은 '中'字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논하였다.

中은 깃발이 네 개인 형식을 가장 이른 것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위에서 아래로 드리운 직선의 한 가운데 항상 하나의 점을 더하는데, 雙鉤法으로 쓰면 과 이 字形이 된다. 의 字形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을 생략하여 변형된 字形이 곧 이다.¹⁶⁾

15) 艾蘭, <試論甲骨文的“中”字>, 《中國古文字研究會第十九屆年會散發論文合集》, 上海: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2012, 2-6쪽.

16) 唐蘭, 《殷墟文字記》, 北京: 中華書局, 1981, 53쪽: 中以四旂爲最夙, 故以 爲最古。凡垂直之線, 中間恒加一點, 雙鉤寫之, 因爲 眾 形, 而 形盛行, 由以省變, 遂爲 形矣。



필자는 唐蘭이 언급한 직선의 한 가운데 點, 크게 윤곽을 드러내며 만들어진 '○'形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가운데'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文字의 指示符號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합32226)의 形體를 자세히 살펴보자. 모든 甲骨文 '中'字의 字形 중에서,  形의 중간부분에 더해진 符號  이 가장 원형에 가까운 形體일 것이다. 이는 古文字 중에 가장 원시적 형태를 많이 유지하고 있고, 象形性이 농후한 商代金文의 字形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가 있다.



(集成7215)





(集成6213)













 의 중간부분  은 분명히 '中間', '가운데'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더해진 단순한 指示符號일 가능성이 많다. 이는 동일한 방식으로 造字된 '刀'字, '彡'字와의 비교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다. 다음은 '刀'字와 '彡'字의 商代金文, 甲骨文 字形이다.



刀:  (集成7023),  (集成1450),  (합21051),  (합5475)

彡:  (集成5055),  (합13679),  (합1772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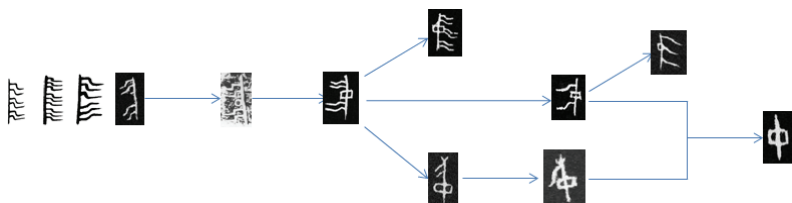
www.kci.go.kr

刀的  은 칼날을 강조하기 위해 더해진 指示符號이고, '彡'의  은 팔뚝

을 강조하기 위해 더해진 指示符號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  의 중간부에 더해진  도 역시 上中下의 '中', 左中右의 '中' 즉 '가운데'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더해진 指示符號일 것이다. 이는 '해시계', '풍향계', '建鼓', '지구' 등의 견해보다, 적어도 文字學的 측면에서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진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해시계', '풍향계', '建鼓', '지구' 등으로 본다면,  의 ,  의 ,  의  등 다양한 변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 ,  등을 어떤 특정 사물을 象形한 것이 아닌, 단순한 文字의 指示符號로 보는 것이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 字形이 이미 초기의 甲骨文, 金文 시대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가운데'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符號  이 있기 때문에 필력이는 깃발의 상징인 여러 필획들을 생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中'字의 造字本義는 균중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깃발'을 모티브로 하여 象形한 후, 字形의 한 가운데에 '中間'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指示符號를 더하여 만들어진 글자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中'字에 대한 字形分析 및 造字本義 고찰을 통하여 '中'字의 字形演變過程을 圖式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4. 결론

본 논문은 甲骨文 '中'字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中'字의 異體字形들을 考古類型學 理論을 참고하여 분류하고, 유형별로 분류된 字形들에 대하여 文字學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 이러한 세밀한 자형분류와 자형분석을 통하여 '中'字의 造字本義에 대하여도 文字符號觀에 입각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中'字의 異體字形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통하여 다른 刻手, 즉 다른 卜辭類組에 따라서 사용하는 字形이 다르다는 것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다른 字形을 사용하여 다른 用法을 나타내는 異體分工現象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中'字의 造字本義는 군중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깃발'을 모티브로 하여 여기에 '中間', '가운데'를 뜻하는 指示符號 '○'을 더하여 만든 글자라는 것을 甲骨文  形과 商代金文  形, 그리고 '刃', '彡' 두 글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역시 보다 많은 文字學의 증거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출토되어 볼 수 있는 古文字 資料 가운데  ,  등의 字形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 더 많은 古文字出土資料를 통하여 새로운 증거들이 보충되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 (英)科林·倫福儒, 保羅·巴恩, 《考古學理論、方法與實踐》, 北京: 文物出版社, 2004.
 裘錫圭, 《文字學概要》(修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14.
 裘錫圭, <關於殷墟卜辭的命辭是否問句的考察>, 《裘錫圭學術文集》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奇川龍, 《賓組甲骨文分類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 榮豐實, 方輝, 靳桂雲, 《考古學理論·方法·技術》, 北京: 文物出版社, 2002.
- 劉釗, 《古文字構形學》(修訂本),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11.
- 艾蘭, <試論甲骨文的“中”字>, 《中國古文字研究會第十九屆年會散發論文合集》, 上海: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2012.
- 溫少峰, 袁庭棟, 《殷墟卜辭研究—科學技術篇》, 成都: 四川省社會科學院出版社, 1983.
- 王子揚, 《甲骨文字形類組差異現象研究》, 上海: 中西書局, 2013.
-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9.
- 俞偉超, <關於“考古類型學”的問題>, 《考古學是什麼》,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 蔣玉斌, 《殷墟子卜辭的整理與研究》, 吉林: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 蔣玉斌, 《甲骨新綴35組(更新第十三組)》,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先秦史研究室
<http://www.xianqin.org/blog/archives/2576.html>
- 田樹生, <釋中>, 《殷都學刊》第二期, 1991.
- 唐蘭, 《殷墟文字記》, 北京: 中華書局, 1981.
- 黃德寬, <卜辭所見“中”字本義試說>, 《文物研究》第三期, 1988.
- 黃天樹, <非王卜辭中“圓體類”卜辭的研究>, 《黃天樹古文字論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6.
- 黃天樹, 《殷墟王卜辭的分類與斷代(簡體版)》, 北京: 科學出版社, 2007.
- Molly Raymond Migon 著, 金庚澤譯, 《考古學的理論과 方法論》, 서울: 주류성출판사, 2006.

< Abstract >

This thesis focuses on the variant character forms and original meaning of the oracle bone inscription Zhong(中). With reference to archeological typology theory, radicals and strokes of each character form are decomposed so as to induce the taxonomical units of “type” following the common features of character forms and the meticulous observation of the demonstrated characteristics of each part of the character forms when character form analysis of oracle bone inscriptions is made. According to Wenzifuhaoguan(文字符號觀),

we tried to a new explanation about original meaning of the oracle bone inscription Zhong(中). In this study,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character form, the paper concludes that original meaning of Zhong(中) is flags added to the middle of said the central meaning of deictic symbol of pictographic character.

Key words: oracle bone inscriptions, variant character forms, Zhong(中), archeological typology, original meaning, deictic symbol.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6. 5. 15.	2016. 5. 31.	2016. 6. 3.	2016. 6. 17.	2016. 6. 30.